

하루를 시작하며



고 춘 옥
시인

며칠 전 일이다. 동네 마트에 아이스 커피 하나를 사러 갔는데 빨대를 예전과는 다른, 작고 구멍이 좁고 색깔은 울긋 불긋한 어린이용을 내줬다. 이상해서 그 연유를 물었더니, 기업들이 상품에 덧붙여 팔던 빨대를 대책 없이 소리만 큰 환경양치기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없애는 바람에 소매점들이 직접 사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바뀌어야 할 문제를 환경 양치기들의 소리를 핑계 삼아 힘이 약한 누군가에게 그

수상한 여름을 지나면서

손해와 책임을 떠넘겼다는 말이 된다. 어쩐지 기업과 환경 양치기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기업은 옥수수로 만든 빨대든 갈대로 만든 빨대든 그 대체용품을 마련하는 것에 골몰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가, 그 많은 옥수수는 어떻게 재배할 것이며, 그 많은 갈대는 어떻게 구하나 하는 생각이 미치자, 친환경 전환이 정말 합리적인 대안인지 의심스럽다. 도리어 플라스틱 빨대가 있어서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환경, 에너지, 안전 전문가인 마이클 셸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의 '지구구를 위한 착각'에서 보면 화학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이라는 것들이 대기 오염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한다. 비닐봉투를 대신하는 종이

봉투와 예코백 생산에 발생하는 탄소와, 소비되는 에너지 양이 비닐봉투보다 더 많다고 보았다. 종이봉투가 비닐봉투보다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44회 이상 재사용해야 하고 유리병은 플라스틱병에 비해 생산과정에서 170에서 250%의 에너지를 더 소비하면서 200에서 400%의 이산화탄소를 추가 발생시킨다고 한다. 심지어 분해과정도 옥수수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대해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만 몰고 가려는 단견은 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실상 알고 보면 환경 양치기들의 배부른 소리가 결국 새로운 자원이냐 창의적인 사업을 위한 기존의 상품을 갈아치우는 거대 사업가들

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는 광고효과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든 것은 세월이 말해준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유럽의 친환경 주도 국가들이 경제 안보를 이유로 '전기차 전환 도중하차'를 선언했다. 언론은 '에너지값 급등' '원료 수급의 난제'를 그 이유로 든다. '한, 중, 일에 배터리 의존도가 커서 우려된다'는 말이다. 이에 친환경 전기차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제주도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 몹시 궁금하다. 모든 게 불안한 이 시대에 경제 해결책과 더불어 자연재해 피해 해결책은 정부의 유, 무능을 가름 짓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나 없이 태풍의 길목에 들어섰다. 무사히 건널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바람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

사설

경제위기 극복에 도정과 손잡은 도의회

우리 경제가 고물가로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단순히 고물가만이 문제가 아니다. 고금리에 고환율로 복합위기를 맞은 것이다. 특히 치솟는 국제유가가 물가에 기름을 붓고 있어 서민들은 더욱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에도 불황에 빠질 것이라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새로 개원한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과 협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해 주목된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지난 4일 개원식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신3고 시대' 경제 위기를 제주도와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개원사에서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집행부와 더 소통하며 제주발전을 위한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행정과 의 소통도 강화해 제주교육의

당면 현안 해결에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도정이 내달 8500억원 규모의 역대 최고 수준의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제주의 미래를 내다보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미 당선 인사를 통해 도민만 바라보는 '민생 의정'에 방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의회 전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 방향으로 민생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이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본다. 도의회가 제주도와 경제위기 대응에 함께 노력하기로 해 기대된다. 그렇다고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은 한치의 소용도 강화해 제주교육의

열린마당

감귤 열매슈기 적극 동참하자



한 구 수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이상 기후와 과원마다 다른 재배 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동일 관리보다는 과원을 수시로 파악해 각 과원별 생육관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열매슈기의 효과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열매슈기를 통해 적정 작과를 하게 되면 무작과 시 보다는 높은 당도 및 낮은 산도의 열매가 달리게 되며 해거리를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열매슈기를 하고 남은 과실에 영양분이 많이 집적돼 극소과를 방지하고 열매의 크기를 균일화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무엇보다도 무작과 시보다 2배 정도 작업능률 상승효과가 있다. 즉 열매의 상품성 제고 효과뿐만 아니라 인건비 측면에서도 절약 효과가 발생한다.

열매슈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은 한 나무를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열매슈기를 하는 것보다는 열매 달린 부위와 나무의 수세를 보면서 시기별로 나눠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농가들은 열매슈기에 소극적이다. 열매슈기라는 것이 본인이 생산하는 감귤의 상품성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지혜로운 농가들은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이 애지중지 만들어낸 자식 같은 귀한 것들을 작은 미련 때문에 미적거리는 농가들이 많다.

그러나 당장 열매슈기에 동참해야 한다. 올해는 비상품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있는 상품을 생산하길 바란다.

뉴스-in

"4:3 재심 기록 보는 일 너무 힘들어"

원 전지사 측근 임명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출범한 가운데 민선6·7기 원희룡 제주도정 당시 정책보좌관실장, 공보관, 서울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원 전 지사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강영진씨가 다음주쯤 김만덕기념관 신임 관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제주도와 김만덕기념관 간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김만덕재단(이사장 양원찬)이 지난달 신임 관장 공모를 통해 최종 합격한 강영진씨의 임명 건을 제주도가 승인 요청한 결과, 제주도는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임기 직전인 지난달 28일 승인을 결정.

김만덕기념관 신임 관장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강씨는 다음주쯤 관장으로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4:3 직권재심 변호사의 눈물

○...5일 4:3 직권재심에서 강병삼 변호사가 그동안 재심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눈물로 표현.

이날 강 변호사는 군사재판 수행인 30명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며 "모두 영문도 모른 채 영장도 없이 체포돼 육지형무소로 끌려갔는데, 한국전쟁이 터질 때쯤 총살됐다"며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 냈을 때 가장 기쁘다. 하지만 4:3 재심의 경우는 기록을 보는 것부터 너무 힘들다. 내가 4:3 유족이기 때문"이라고 눈물.

이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큰아버지가 4:3 희생자로 언제 결정됐는지 모른다는 점을 인지, 즉석에서 법정에서 검사에게 문의해 결정된 시기를 강 변호사에게 전달. 송은범기자

원도심 공동화 가속, 소극행정 탓 아닌가

제주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행정이 별이 없는 도시재생사업, 중앙부처 공유재산 활용,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원도심정책을 무색케 한다. 지역사회가 우려와 실망을 더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절실함마저 제기된다.

최근 금융기관들의 원도심 탈출은 연쇄적인데다 공동화 가속이란 상징성까지 더해져 충격적이다. 원도심서 수 십년 영업해 온 제주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내로라하는 금융기관들 모두 최근까지 떠났다. 30년 남짓한 공동화 기간중 주요 금융기관들의 원도심 이탈은 초유의 일이다. 금융기관 이전은 고객 감소로 당연할 수 있지만 고품질 주민과 상인 자영업자 불발, 상권 활성화, 인구유입 측면에서 보면 현실화되지 말아야 될 일이다. 행정이 금융기관들의

원도심 영업 지속을 유인할 수 없었는지도 아쉬운 대목이다.

행정이 원도심 활성화 시책들을 다들 들여다보아야 한다. 도가 감춰둔 '상생모두'와 제주기상청 옛 청사 창업지원센터 등을 수 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했지만 저조한 이용실적을 면치 못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만 사업지 9곳에 총 14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현실도 재검점 필요성이 나온다.

도정이 전방위적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옛 제주대병원 건물 매입이나 목관아 답장 개방 등 중앙부처 소유·허가사항에 대한 중앙협의, 상인·주민과의 지역상생모델 개발, 사기업 유치 등에 동원가능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총동원해야 한다. 기존 원도심 재생 개별사업이 진행된다고 '할 일' 한다는 식의 소극적 자세로는 안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익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스위트몽키 농업회사법인(이하 "존속회사" 이라 함)과 주식회사 아이들루르즈 농업회사법인(이하 "소멸회사" 이라 함)은 2022년 7월 5일 개최된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 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비율은 1 : 0.430000이며, 위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회사는 액면금 10,000원인 보통주식 21,500주를 발행합니다.
본 건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는 합병일(2022년 8월 10일) 현재 소멸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일체를 승계하고 소멸회사는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1. 채권자 이익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라 본 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또는 주주는 아래의 기간 내에 이의나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대상 : 존속회사에 대한 채권 또는 주권을 보유하신 분
나. 기간 : 2022년 7월 6일부터 2022년 8월 8일 까지
다.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산양6길 6-9 (주)스위트몽키 농업회사법인 재무 담당자 앞
라. 기타 : 상기 제출기간 종료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합병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2년 7월 6일
주식회사 스위트몽키 농업회사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산양6길 6-9
대표이사 김정환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